

아동이 지각하는 교사-아동 관계와 교사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김 혜 금(동남보건대 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지각하는 교사-아동 관계와 교사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공격성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동작구와 관악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4학년 남, 녀 240명이었으며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미회수 또는 질문지에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의 자료는 제외하고 총 216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Seo와 Kwon(2002)의 한국판 공격성 척도와 Lee(2001)의 간접성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아동이 지각한 교사-아동 관계는 Van Dijk 외(2006)가 개발한 교사-아동 관계 척도(Kindergarten-Teacher Interaction Computer test; KLIC)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심리통제 분석을 알아보기 위해서 Barber(1996)가 개발하고 전숙영(2007)이 번안한 부모용 심리통제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를 교사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Pearson 상관관계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심리적 통제, 교사-아동 관계, 아동의 공격성은 서로 의미있는 관계가 나타났다. 아동이 교사와의 관계를 친밀하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공격성을 덜 보이고, 교사의 심리적 통제를 덜 지각하였다. 반면 교사와 갈등적인 관계로 지각하는 아동은 교사의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교사에게 의존적인 아동은 교사의 심리적 통제 중 애정철회를 많이 지각하며 공격적인 아동은 교사의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지각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자기표현제한, 감정불인정, 비난과 같은 교사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공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죄책감 유발과 같은 교사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교사의 애정철회는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의 심리적 통제는 외현적 공격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교사-아동 관계 중 친밀감과 갈등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아동 관계 중 친밀감은 관계적 공격성을 줄이며 갈등은 외현적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임을 보여준다.

넷째, 교사의 심리적 통제와 교사-아동 관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교사의 심리적 통제가 교사-아동 관계보다 높은 상대적 예측력을 보였다. 특히 비난이 아동의 공격성을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변인이었으며 자기표현제한, 감정불인정, 비난, 애정철회와 같은 교사의 심리적 통제와 갈등적인 교사-아동 관계는 아동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이 지각하는 교사-아동 관계와 교사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이는 아동의 공격성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개발 시 교사의 심리적 통제를 줄이고 친밀한 교사-아동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